“미얀마 민주항쟁, 5·18혁명의 재현”

광주불교계, 미얀마 민주화운동 돕기 나서

모금 · 알리기 집회 개최 예정
재한미얀마 이주민 네트워킹
한 · 미얀마 불교계 접촉 예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지역 불교단체가 3월 12일 광주불교회관에서 미얀마 시민에 대한 쿠데타 군부의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5.18불교추모행사위원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가고문 아웅산 수지여사와 미얀마의 대통령 윈민 및 여당 지도자들을 축출한 뒤 전부 가택 연금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군부독재 시대민주 인사를 구금하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모습에 41년 전 5월 광주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별다른 저항수단도 없는 미얀마 시민들을 향해 그들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처럼, 총에 검을 끼우고, 방패와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총탄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광주지역 불교계 사부대중은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군사쿠데타 세력들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총격과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불교계는 3월 12일 광주불교회관서 미얀마 민주화운동돕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강윤구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장, 미얀마 유학생인 팽이마웅(전남대 석사과정),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기 위해 연대해서 모금운동과 집회 등을 지속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팽이마웅(전남대 석사과정) 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얀마 군부 세력의 쿠데타는 미얀마 국민들의 뜻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탄압을 일삼는 군부를 몰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팽이마웅 씨는 이어 “매일 미얀마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광주 터미널 유스퀘어에서 집회를 통해 알리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군부에 반대하다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 외국인들의 한국내 활동을 지원하는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은 “2월 1일부터 매일 40명에서 60명에 달하는 미얀마 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광주 곳곳에서 참상을 알리고 있다”고 미얀마 이주민들의 활동을 전했다.

이 센터장은 “광주불교연합회가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활동하고 있어 감사하다. 미얀마 상황은 광주 5.18과 같기에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불교계의 관심도 더욱 필요하다”며 “광주에는 미얀마인들이 400여 명이 있으며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 내 미얀마 이주민들을 네트워크화 하고 한국과 미얀마 불교계의 교류관계를 활용한 지원 등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주불교계는 향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염원하는 기도와 함께 모금운동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관련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 다문화 가정에 자비쌀 전달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가구에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월 9일 구례 다문화가정 5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는 3월 9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후원으로 마련한 1000kg(20kg 50포)의 자비나눔 쌀을 구례지역 다문화 가정 50가구에 전달했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는 쌀 전달 뿐만 아니라 주거와 자녀 양육 환경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구례읍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센터와 경찰서에서 쌀을 가지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척면에 거주하는 정 모씨도 “아이들이 한창 성장할 시기에 쌀을 후원해 주신 화엄사와 센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운영 후 2019년부터 화엄사와 함께 지역사회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의 삶을 위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정착패키지, 다문화자녀성장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운 최치원 선생 유산 세상 속으로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3월 18일
최치원문학관에 유물24점 기증

경주최씨중앙종친회 최병주 명예회장과 최창규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사무총장 등은 3월 18일 최치원문학관을 찾아 소장자료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 자료는 고운국제교류사업회에서 발간 한 〈고운 최치원 선생 문집〉 상 · 하권을 포함해 중국 서예가 구단이 쓴 최치원의 시 ‘추야우중’ 한시 족자, 중국 고급 공예미술사 유지밍의 ‘차사호’, 〈중국역사 의무교육 교과서〉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발행 한국의 인물 100인 시리즈 ‘최치원 기념 메달’ 등 24점이다.

고운 선생의 문집은 1972년 발간 이후 2016년 4월 44년만에 출판된 문집으로 최광식 前 문체부 장관과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수가 번역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최치원문학관장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 최병주 명예회장 등이 기증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기증한 자료는 최병주 명예회장과 최창규 사무총장이 중국 양저우에 위치한 최치원기념관을 왕래하며 수집한 고운 선생의 자료로 현재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기대되는 자료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치원문학관 유물기증과 함께 향후 추진될 고운 최치원 선생 학술대회 개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고운 최치원 선생은 9세기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로서 중국 당나라에서 ‘토황소격문’ 으로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유교 · 불교 · 도교에 모두 이해가 깊었고, 유 · 불 · 선 통합 사상을 제시하였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과 대중들이 불교단체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신광사, 자비의 쌀 나눔에 동참

광주 최초 비구니 수행도량인 신광사(주지 동현)가 3월 15일 자비의 쌀 1500kg을 불교단체에 전달했다. 신광사는 입춘기도와 정월기도 기간 중 신도들이 십시일반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미를 모아 빛고을나눔나무, 자비신행회, 광주외국복지센터,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맑고향기롭게광주지부에 전달했다.

동현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신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공양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 · 귀신사 사찰 화재 특별점검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와 귀신사(주지 무여)가 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와 함께 화재없는 사찰만들기 컨설팅을 진행했다. 3월 10일 김제 소방서 관계자들이 금산사와 귀신사를 방문해 진행된 이날 현장 안전컨설팅은 △연등, 촛불 등 화기취급 주의 지도 △사찰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김제 소방서 이동환 방호구조과장은 “전통사찰은 주요구조부가 목재로 되어있고 대부분 산림에 인접해 있어 유사시 산림화재로 이어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찰 관계자 및 방문객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도 화재점검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4월 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사찰 연등 및 전선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 규격참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ISO 9001 인증기업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